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16-

가진심은 학교를 행복한 교육 공동체+

## 2016. 유아교육 선진화 유공교원 및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 대 상 : 유아교육 유공교원(전문직) 20명
- ◆ 기 간 : 2016.7.10.(일) ~ 2016.7.21.(목)
- ◆ 방문국 : 동유럽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b>I. 연수 개요</b>	<b>1</b>
<b>II. 연수국의 유아교육제도 및 정책</b>	<b>5</b>
1. 독일	5
2. 체코	6
3. 오스트리아	7
4. 슬로베니아	8
5. 크로아티아	8
6. 보스니아	9
7. 세르비아	10
<b>III. 연수국 유아교육기관 방문</b>	<b>11</b>
1. 방문 유아교육기관 이해	11
가. 독일 1 (OlgastraBe Kindergarten)	11
나. 독일 2 (laurentius kindertagesstätte)	15
다. 체코 (Helichova Kindergarten)	18
라. 오스트리아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	21
마. 크로아티아 (Izvidac Kindergarten)	24
2. 방문 유아교육기관의 우수사례	25
3. 전북 유아교육의 적용방안	28
<b>IV. 연수국 역사 · 문화체험</b>	<b>30</b>
<b>V. 국외연수 후기</b>	<b>35</b>



# I

## 연수 개요



### 1. 연수 목적

- 가. 외국의 유아교육정책 동향 파악·분석을 통한 적용 방안 모색
- 나. 현장 연수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전문성 신장
- 다. 선진유치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교육력 제고

### 2. 연수 추진 방침

- 가. 교육 현안의 개선방향 모색과 선진 유아교육사례 중심의 연수
- 나. 선진 유치원 방문, 세미나 등을 통한 현지 체험 연수
- 다. 연수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를 위한 기회 확보
- 라. 연수 보고서 작성을 통한 국외 연수 결과 활용
- 마. 동유럽의 역사와 문화 탐방을 통한 유럽 문화 이해

### 3. 연수 세부 내용

- 가. 기간 : 2016. 7. 10.(일) ~ 7. 21.(목) [10박 12일]
- 나. 장소 :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 다. 연수 내용

구분	연수 내용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체험연수의 취지와 목적 등의 바른 이해</li> <li>○ 연수국의 유아교육 현황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BS 세계의 교육현장&gt; 시청</li> </ul> </li> <li>○ 연수국 유아교육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공식 방문기관에 대해 이해하기</li> <li>- 방문 유아교육기관의 특징 및 사전 질문 내용 준비</li> </ul> </li> <li>○ 연수 시 품위유지 등 국외연수 규정 준수</li> <li>○ 연수국의 역사·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BS 세계테마기행&gt; 시청</li> </ul> </li> </ul>

구분	연수 내용
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유아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수·학습방법,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연계방법 등 확인</li> <li>○ 방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조별 토론회 실시</li> <li>○ 현지의 우수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li> <li>○ 전북 유아교육에 적용방안 모색</li> <li>○ 연수국의 역사, 자연환경, 문화탐방 등을 통한 자료 수집</li> </ul>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 보고서 및 연수 후기 작성</li> <li>○ 연수 보고회 실시(개선사항 논의 및 결과분석)</li> <li>○ 우수사례를 유치원 현장에 활용 방안 구안</li> <li>○ 교원의 자긍심 및 역량 강화</li> </ul>

#### 4. 연수 참가자 명단

순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관	신00	여	인솔관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장학사	송00	여	인솔
3	임실동지유치원	원장	김00	여	대표
4	군산중앙유치원	원장	박00	여	
5	전주프렌즈유치원	원장	김00	여	
6	전주기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곽00	여	총무
7	남원월락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문00	여	
8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윤00	여	
9	이리유치원	수석교사	박00	여	
10	남원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석교사	김00	여	
11	전주온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00	여	
12	전주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권00	여	
13	어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최 0	여	
14	이리부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00	여	
15	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허00	여	
16	신태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00	여	총무
17	이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신00	여	
18	봉서유치원	교사	박00	여	
19	소양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00	여	
20	삼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김00	여	

## 5. 연수 세부 일정

일자	일정	시간	장소	주요활동
제1일 7/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교육청 주차장 집합</li> <li>· 인천공항 출국 수속</li> </ul>	18:00 21:00	도교육청 인천	인원 및 여권확인
제2일 7/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아부다비→뮌헨공항 도착</li> <li>· 마리엔광장, 프라우엔 교회 탐방</li> </ul>	00:40 ∫ 13:40 14:00~	인천 아부다비 뮌헨	향후일정확인 및 출발
제3일 7/12(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뉘른베르크로 이동</li> <li>· <b>Olgastrabe Kindergarten 방문</b></li> <li>· <b>Laurentius Kindertagestatte 방문</b></li> <li>· 뉘른베르크 바이에른 구시가지 탐방</li> <li>· <b>독일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4:00 ∫	뮌헨 뉘른베르크 (독일)	기관방문(2개) 및 역사·문화체험
제4일 7/1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식 후 프라하로 출발</li> <li>· <b>Helichova Kindergarten 방문</b></li> <li>· 틴교회, 천문시계탑, 카를교, 프라하성 탐방</li> <li>· <b>체코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4:00 15:00 ∫	뉘른베르크 프라하 (체코)	기관방문 및 역사·문화체험
제5일 7/14(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식 후 잘쯔부르크로 이동</li> <li>· <b>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 방문</b></li> <li>· 모짜르트 생가 및 박물관</li> <li>· 마라벨 정원과 궁전</li> <li>· 레지던츠광장, 대성당 등 구시가지 탐방</li> <li>· <b>오스트리아 유아교육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4:00 15:00 17:00 ∫	잘쯔부르크 (오스트리아)	기관방문 및 역사·문화체험
제6일 7/15(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식 후 블레드 성 이동</li> <li>· 블레드 성 외관, 호수가 산책</li> <li>· 오파티야로 이동</li> <li>· <b>크로아티아 유아교육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4:00 ∫	블레드 (슬로베니아) 오파티야 (크로아티아)	역사·문화체험
제7일 7/1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리트비체로 이동</li> <li>· 플리트비체국립공원 트레킹</li> <li>· 중식 후 자다르 이동</li> <li>· 나로드니 광장 시계탑, 성 아나스타샤 대성당, 바다오르간 탐방</li> <li>· <b>보스니아 유아교육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1:00 ∫ 14:00 ∫	플리트비체 (크로아티아) 자다르	역사·문화체험
제8일 7/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식 후 스플릿으로 이동</li> <li>· 디오크레시안 궁전, 그레고리우스닌 동상</li> <li>· 해변길 산책</li> <li>· 두브로브니크 이동</li> <li>· <b>세르비아 유아교육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1:00 13:00 ∫	자다르 스플릿 두브로브니크 (크로아티아)	역사·문화체험

제9일 7/1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차 거리, 오느플리안 분수 탐방</li> <li>· <b>Izvidac Kindergarten 방문</b></li> <li>· 중식 후 사라예보로 이동</li> <li>· <b>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조별 토론</b></li> </ul>	09:00 11:00 f	두브로브니크 사라예보 (보스니아)	기관방문 및 역사·문화체험
제10일 7/1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인 라틴다리와 시내 탐방</li> <li>· 중식 후 베오그라드 이동</li> </ul>	11:50 f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역사·문화체험
제11, 12일 7/20(수) 7/2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오그라드 시내 탐방</li> <li>· 베오그라드→아부다비→인천</li> <li>· 귀가</li> </ul>	12:25 19:55 22:20	베오그라드 아부다비 인천 도교육청	역사·문화체험 및 이동

## 5. 기대 효과

- 가. 전라북도 유아교육 개선사항 및 정책 방향 설정
- 나. 선진 현장 체험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다. 동유럽 유아교육의 우수사례를 전라북도 유아교육 현장에 일반화

## II 연수국의 유아교육



### 1. 독일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통일 전		통일 후	비 고
	동 독	서 독		
종류	- 탁아소 - 유아원 - 유치원	- 유아원 - 유치원 - 학교유치원 - 호르트 (만6세~12세-방과후개념)	- 유아원, 유치원 - 학교유치원, - 호르트 (만6세~12세-방과후 개념) - 유아학교 - 가정보육시설 - 부모공동보육	1996년 반일제 유치원 (4~6세) 은 취원 의무화
교육 현황	1~6세	1~3세	1~6세	
취원 자격	- 1~3세 : 탁아소, 유아원 - 3~6세 : 유치원 의무교육	- 3~6세 - 의무교육 아님	- 만 6개월부터 취원 가능 - 의무교육 아님	
교육 내용	- 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 촉진 프로그램 - 법적 명시가 있으나 시행은 미약함 - 놀이중심교육 - 급(간)식 영양, 낮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교육보다 건강· 위생의 보호차원이 강조됨	- 일반적인 원칙 - 종교 교육 - 기본적인 대화, 창의성 교육 - 환경과 자연이해 교육 - 건강 교육 - 놀이중심교육 - 가정과 초등학교 와의 연계교육	- 일반적인 원칙 - 종교 교육 - 기본적인 대화, 창의성 교육 - 환경과 자연이해교육 - 건강 교육 - 놀이중심교육 - 가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 - 철저한 놀이중심교육에서 개성·신장과 전인적인 성장에 관심 증가	
교수·학습 방법		- 철저한 놀이중심 - 사회성 교육에 치중		
일과 운영		- 부모의 일상생활과 직접적 관련 * 교육과정반 : 08:00~12:00 * 방과후과정반 : 13:00~17:00 * 종일반 : 06:30~17:00		
교육 평가		- 인간교육의 달성 여부 -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사회성, 도덕성의 발달 중요시 함 - 기본생활습관 형성 평가		
물리적 환경		<실내 공간> - 학습 자극 - 경험 제공 - 사회적 관계 경험	<실외 공간> - 공공놀이터 이용 - 흥미로운 공간 - 이웃 사람들과의 만남 - 즉각적 환경에서 경험을 나누는 환경	



교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를 관찰하면서 보조자 역할 수행</li> <li>- 비디오 촬영으로 평가하고 다시 재교육 실시</li> </ul>
교사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유치원을 책임지는 조직체, 교회, 기타 복지기관 또는 지역정부에서 제공함.</li> <li>- 지역정부 자금으로 후원되며 자발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li> <li>- 교원들은 1년에 보통 8일 정도 연수과정에 참여함</li> </ul>
교사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 직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년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전실습을 해야만 3년제 유아교육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li> <li>- 3년제 교육기간 중 2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1년은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여 실습을 강조함. 현장실습 중에 일주일에 2번은 학교에 나와 160시간의 강의를 수강해야 함</li> <li>- 1년간의 실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국가가 인정하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li> </ul>
기관과 가정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기관은 가정 양육에 대한 보충적 경험 제공</li> <li>- 기관과 부모와의 밀접한 협력은 유아교육에서 매우 중요시 됨</li> <li>- 아동과 가족의 실생활 상황을 고려함</li> <li>- 매일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li> <li>- 부모를 포함한 여러 세대의 참여 독려</li> <li>- 교육활동에서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li> <li>- 부모참여는 유치원의 조직문제, 유치원에 교육적인 제안, 발전 기금 만들기 활동 등으로 이루어짐</li> </ul>

## 2. 체코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체코	비고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놀이방,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li> <li>- 출생~만36개월까지 가정육아제도 정착 (가정육아 시 정부로부터 어른 1명분의 인건비 지원 및 경력 인정해 줌)</li> <li>- 만3세 이전의 영·유아 : 공립 놀이방 이용 (지원 자격 : 부모의 풀타임 고용 계약서 증명 제출)</li> </ul>	
취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세~6세 취원 가능</li> </ul>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9월부터 무상교육 실시</li> </ul>	
교육 내용 및 강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수준의 지침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li> <li>- 유치원마다 프로그램의 자율 선택 운영</li> <li>- 아동의 자연적 요구 충족</li> <li>- 가정과의 협력 아래 인성 발달</li> <li>- 육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래된 전통을 기반으로 다소 단호하고 엄격</li> <li>* 자녀를 소중한 인격체로 보고 부모와 자녀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li> <li>* 평등 속에서도 부모가 육아의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 있는 교육을 실시</li> </ul> </li> </ul>	가정 교육 강조

교수·학습 방법	- 개인의 자율성 강조
일과 운영	- 교육과정반 : 07:00~13:00, 또는 15:00 - 방과후과정반 : 13:00~17:30
평가	- 교사 평가 : 없음(연임 담임제도 운영) - 유아 평가 : 유아의 행동 평가 내용을 가정 및 초등학교에 송부
교사 양성 과정	-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 전문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기관과 가정의 연계	- 1년에 2회 정도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부모교육 운영

### 3. 오스트리아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오스트리아	비고
종류	- 탁아시설(creche) - 유치원(kindergarten) - 유아-부모 그룹(parent-toddler groups)의 보육시설	
취원 자격	- 0세~6세 취원 가능	
교육비 지원	- 만5세 취학 직전 1년 무상 지원 (오전 교육과정만 지원, 오후 방과후과정반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 ※ 2016년도 9월부터 무상·의무교육 실시	
교육 내용 및 강조점	- 국가 수준의 지침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 사립유치원의 경우 관리자 재량에 의해 교육내용 운영 - 자연, 예술 등 유아의 자유로운 표현과 성장에 주목하는 교육내용 - 목적 : 취학 전 유아의 독일어 구사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및 보편적인 교육을 통해 유아의 최소 발달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음	
교수·학습 방법	- 개인의 자율성 강조	
일과 운영	- 교육과정반 : 07:00~13:00, 또는 15:00 - 방과후과정반 : 13:00~17:30	
평가	- 교사 평가 : 없음 (연임 담임제로 운영되며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큼) - 기관 평가 : 교육청에서 1년에 1회 점검 정도 실시	
교사 양성 과정	- 5년 과정의 고등학교 전문유치원 교사양성기관 졸업 ※ 국가적 차원으로 공립과 사립의 일원화 추진 중에 있음	
기관과 가정의 연계	- 1년에 2회 정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부모교육 운영 - 유치원 축제에 학부모 참여 - 지역 연계 : 주변의 스포츠 광장 연계하여 이용 - 학부모 상담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협의, 상담, 지원	

#### 4. 슬로베니아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슬로베니아	비고
종류	유치원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자연환경을 중시하며 운동 시설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목표로 함</li> <li>- 놀이중심의 건강한 교육 공간 실현</li> </ul>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12개월부터 육아의 국가 지원 실시</li> </ul>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시</li> <li>- 자기 주도적 학습 장려</li> <li>- 창의성 교육</li> <li>- 환경과 자연이해 교육</li> <li>- 건강교육</li> </ul>	
유아 교육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원율이 높음</li> <li>- 유·보 통합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나라 (행·재정적 등 모든 면에서 통합됨)</li> </ul>	

#### 5. 크로아티아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크로아티아	비고
종류	유치원	
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부터 미취학 유아교육제도(Pre-school) 도입</li> <li>-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시</li> </ul>	
취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6개월~6세 취원 가능</li> </ul>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 교육</li> <li>- 장애아동, 영재아동, 소수민족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학령기 이전 프로그램, 외국어 습득 프로그램, 예술, 문화, 종교,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특별프로그램 : 초기 외국어교육, 음악, 예술, 드라마, 연극, IT, 스포츠댄스,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종교, 보건, 안전, 예방, 재활,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li> <li>- 교육활동은 라틴어, 크로아티아 언어로 수행</li> <li>- 소수민족 유아들의 교육 : 소수민족 권리 보장 관련법과 규칙에 따라 제공</li> </ul>	
교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주의적 발달 개념(아이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에 기초</li> <li>- 개개인의 특성을 발현시키는 것에 중점</li> <li>- 자발성을 키우는 교육</li> <li>- 유아주도적 교육과정 운영</li> <li>- 발달의 원리를 존중, 발달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li> </ul>	

<b>일과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반 : 하루 7~10시간</li> <li>- 반일반 : 하루 4~6시간</li> <li>- 집중프로그램(1~10일) : 짧은 여행,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li> <li>- 3시간만의 프로그램</li> </ul>		
<b>교육 평가</b>	교육 활동 및 조건들의 결과 평가		
<b>물리적 환경</b>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lt;실내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영역별 환경 구성</li> <li>- 필요에 따른 효율적 공간 구성</li> <li>- 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 유도</li> </ul>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b>&lt;실외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와 연결된 대근육 활동 공간 활용</li> <li>- 덮개를 사용한 모래놀이</li> <li>- 공원처럼 조성된 실외놀이장</li> </ul> </td> </tr> </table>	<b>&lt;실내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영역별 환경 구성</li> <li>- 필요에 따른 효율적 공간 구성</li> <li>- 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 유도</li> </ul>	<b>&lt;실외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와 연결된 대근육 활동 공간 활용</li> <li>- 덮개를 사용한 모래놀이</li> <li>- 공원처럼 조성된 실외놀이장</li> </ul>
<b>&lt;실내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미영역별 환경 구성</li> <li>- 필요에 따른 효율적 공간 구성</li> <li>- 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 유도</li> </ul>	<b>&lt;실외 공간&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와 연결된 대근육 활동 공간 활용</li> <li>- 덮개를 사용한 모래놀이</li> <li>- 공원처럼 조성된 실외놀이장</li> </ul>		

## 6. 보스니아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보스니아	비고
<b>종류</b>	보육, 유치원, 놀이방	
<b>교육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교육을 교육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규정 (2007, 미취학교육에 관한 기본법)</li> <li>· 미취학교육 기관 : 출생~취학할 때까지의 교육활동 이행</li> <li>· 기본법 15조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li> <li>- 사라예보와 포사비나 주에서 미취학교육에 관한 법 채택(2008년)</li> </ul>	
<b>취원 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 6개월~3살</li> <li>- 유치원 : 3살~취학 전</li> </ul>	
<b>교수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주도적 학습</li> <li>- 아이들의 발달 요구사항에 부합</li> <li>- 모든 교육기관과 전 교육단계에서 교육수준의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함 (아동, 학부모, 교사,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li> </ul>	
<b>일과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 종일반, 반일반에서 유아들의 돌봄, 보호, 교육</li> <li>- 유치원 : 종일반, 반일반에서 3살~취학 전 유아들의 교육</li> <li>- 놀이방 : 특별히 짧은 프로그램(음악놀이방, 스포츠놀이방)을 수행</li> </ul>	
<b>교육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기관 활동 공시</li> </ul>	

## 7. 세르비아 유아교육제도와 정책

구분	세르비아	비고
종류	유치원	
교육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4월, 초·중등 교육개혁을 단행</li> <li>- 2003년 9월, 초등학교 예비 과정 1년을 포함하는 9년 의무 교육제를 채택하여 무상교육 실시</li> </ul>	
유아교육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들의 초기 발달을 도모하여 국가에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줌</li> <li>- 부모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자녀의 교육을 지속시킬 수 있음</li> </ul>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아동 교육 : 가난, 사회적 소외 문제 해결의 필수 요인으로 인식</li> <li>- 미취학 아동, 특히 소외 계층 아동들의 유치원 교육 범위가 매우 낮음</li> <li>- 국제 밀레니엄 발전 목표에 유치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계획 포함</li> <li>- 유니세프, 교육부, 과학 기술부가 협력하여 미취학 아동들의 유아교육을 위한 재정적 가능성 연구, 비용모델 발전시킴</li> </ul>	

# III 연수국 유아교육기관 방문

## 1. 방문 유아교육기관 이해

### 가 OlgastraBe Kindergarten(Stadt Nürnberg Jugendant)

#### 1) 유치원 현황 및 교육과정

유치원명	설립 형태	종류	원아 수	교원 수	비고
OlgastraBe Kindergarten	시립	·만6개월~3세 : 유아원 ·만3세~6세 : 유치원	100명 혼합연령반 4학급	19명 정규직 및 파트타임	- 저소득층 : 시 지원 - 만4세까지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만5세 : 무상

#### 가) 위치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뉘른베르크는 50만 명의 인구가 있는 큰 도시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약 70여개의 유치원이 있다.

#### 나) 학급현황 및 교사현황

OlgastraBe 유치원은 15개국의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총 100여명의 유아와 정규교사 및 파트타임 교사 19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학급은 혼합연령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4개의 학급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시간에는 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오가며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학급 전담교사, 프로젝트 전담교사, 요리활동 전담교사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었으며, 교사는 유아 관찰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와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유아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원장 다이스너는 유아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과 학교생활을 하는데 준비과정으로써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감 크리킨 마이너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에 역점을 두어 서로 협력하고 있었다.

## 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목표

유아 개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 자립심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소그룹 활동으로 유아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으며, 신체와 정신적 성장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가정 및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아침식사 후 자유놀이 시간에는 근처 초등학교의 교사가 유치원으로 방문하여 독일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1주일 중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는 자연을 살펴보고 동물원 등 야외놀이, 노래, 단체 활동을 즐긴다.

## 라) 운영 시간

부모의 일상생활을 고려하여 오전반(7시~12시), 오후반(7시~14시), 종일반(7시~16시 45분)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든 유아가 9시까지 등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OlgastraBe 유치원의 하루 일과>

활동시간	활동명	활동내용
07:00 ~ 08:00	자율등원	- 정한 공간에 모여 자유롭게 놀이
08:00 ~ 09:00	자유놀이	- 정규교사가 출근하면 각 반으로 이동하여 자유놀이 및 등원 시 학부모 상담
09:00 ~ 12:00	이야기나누기 아침식사	- 자기소개, 하고 싶은 놀이 계획, 인사노래 - 각자 집에서 가져온 아침식사 (건강식만 허용, 단음식은 금함)
	자유놀이  운동시간	- 계획한 놀이를 실행 <독일어가 느린 유아는 독일어 수업도 함> - 체육관에 가서 운동 - 날씨가 좋으면 야외활동(동물원, 공원 등)
※ 반일반 유아는 12:00 귀가함(전체 유아의 10%)		
12:00 ~ 14:00	점심식사	- 점심 : 케이터링 서비스(오븐에 데워 먹임) * 월 1회 부모가 만든 건강 식사 가져오는 날 * 어린 유아는 식사 후 2시간 낮잠 * 취학 전 유아는 자유놀이 또는 교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14:00 ~ 16:45	자유놀이 및 실외놀이	- 14:00부터 자유놀이 및 귀가 - 요일별 활동 실시 (예) 수요일 : 요리, 금요일 : 스포츠 등
	※ 16:45분까지 모든 유아 귀가	

### 마) 등·하원 방법

유아의 등·하원은 반드시 개별로 학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유치원 통학차량은 없으며 운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바)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는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뉘른베르크 시에서 차등 지원하는데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등록기간이 따로 있어 그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원이 차면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 2) 교수·학습방법

OlgastraBe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수방법을 중요시하며 읽기, 쓰기, 셈하기 보다는 인성교육과 생활습관 교육, 친구 사귀기를 비롯한 사회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실의 각 영역에는 미술활동, 역할놀이, 쌓기놀이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들이 놓여 있었으며, 놀이 활동에서 경험한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 투박하고 자유롭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중 유아가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게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할 때는 4~5명 정도의 유아와 교사 1명이 함께 하는데 이때 유아가 자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 3) 유치원 환경

			
자유놀이 상황	낮잠실	실내 놀잇감들의 배치	실외놀이터

OlgastraBe 유치원은 각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과 교사를 위한 화장실, 교사와 부모의 상담실, 바깥놀이 시설, 실외 창고, 체육활동 시설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고 있었다. 실내공간은 유아의 학습을 자극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



하며, 다방면의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환경구성으로 다양한 놀잇감을 갖춘 놀이 영역, 휴식 및 언어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실외공간은 자연 속에서 얻은 원통 통나무, 나무그네, 모래놀이장, 오솔길 같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실외놀이 시설을 곁들여 놓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4) 평가 방법

### 가) 유아 평가

교사는 아이들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자율성을 기를 수 있도록 관찰하는 역할을 하므로 유아 평가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찰일지,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 유아의 발달정도를 평가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유아 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삼고 있었다.

### 나) 교사 평가 및 교사 연수

OlgastraBe 유치원에서 교사 평가 실시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실습과 시험을 거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교사 양성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교사로서 자부심이 높고 유치원과 학부모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으며 또한 학부모는 매일 자녀의 발달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자적 입장에서 교사를 대하는 것 같았다. 다만, 교사 중 견습생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교사 재교육 및 연수방법에 대해서는 1년에 2~3번 연수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교사가 원한다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다) 기관 평가

기관평가는 월 1회, 시에서 담당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시설 안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운영 평가 등과 같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5)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협력관계

OlgastraBe 유치원은 지역사회에 열린 공간으로써 이들에게 기능과 재능을 기부 받아서 교육활동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유치원은 10명 정도의 학부모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상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 학부모들에게 만남과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 나 laurentius kindertagesstatte

### 1) 유치원 현황 및 교육환경

유치원명	설립 형태	종류	원아 수	교원 수	비고
laurentius kindertagesstatte	비영리 민간 복지재단	·만1세~3세 : 유아원 ·만3세~6세 : 유치원	100명 혼합연령반 4학급	학급당 2명, 특별활동 지도교사 배치	- 정부지원 - 교회재단 유치원

#### 가) 위치

laurentius kindertagesstatte는 독일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복지재단 Diakonie에서 운영하는 160년의 전통을 가진 유치원으로 뉘른베르크의 근교 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 나) 학급현황 및 교사현황

만 1세~6세 연령의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러시아계, 폴란드계, 아시아계 등 외국인 유아가 20% 정도이며, 비독일인과 독일인 아이들의 비율을 맞춰 반이 구성되어 있다.

전체 유아 수는 총 100여명으로 혼합연령반 4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학급당 25명이 배정되어 있다.

교사는 1학급당 2명이 배정되어 있고 기타 특별활동 지도교사가 있다. 대부분 1명의 교사가 3년 내내 담임을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

#### 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목표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유치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놀이중심교육으로 실시한다. laurentius kindertagesstatte의 교육목표는 ‘스스로 하는 원아 기르기’이다.

오전에는 주로 유치원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낮잠이나 휴식 및 바깥활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어려서부터 조기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고, 운동이나 특기교육은 클럽에서 수강료를 내고 실시하고 있다.

## 라) 운영 시간

맞벌이 자녀를 위하여 오전 7시부터 자유롭게 등원하기 시작해서 9시까지 등원하여 자유 놀이가 이루어진다.

### <laurentius 유치원의 하루 일과>

활동시간	활동명	활동내용
07:00 ~ 09:00	자율등원 및 자유놀이	- 등원 시 학부모 상담 - 한 공간에 모여 자유놀이
09:00 ~ 12:00	아침식사 기도하는 시간  자유놀이	- 가정에서 가져온 아침식사 -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일과를 시작 (종교와 상관없음) - 자유놀이 및 특별활동
	※ 반일반 유아 12:00 귀가(50%)	
12:00 ~ 13:00	점심식사	- 유치원에서 제공
13:00 ~ 14:00	낮잠 및 자유놀이	- 3~4세 : 낮잠, 5세 : 자유놀이 - 요일별 활동 실시 (예) 수요일 : 요리, 금요일 : 스포츠 등
14:00 ~ 16:00	귀가지도	- 모든 유아 귀가

## 마) 등·하원 방법

유아 등·하원은 반드시 개별로 학부모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고 유치원 통학차량은 없으며 운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바) 교육비 지원

유치원 학비는 1살부터 정부 지원 금액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고, 교회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바우처 지원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신 출산 휴가는 3년인데 유급 휴가 1년(의무적으로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무급 2년까지 정해져 있다.

## 2) 유치원 환경

### 가) 영역 구성

교실에 3~4개의 흥미영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원목으로 만든 놀잇감이 있는

미술방과 블록방, 형겅인형과 소꿉놀이 교구가 있는 소꿉방이 있다. 교실 중앙에는 둥근 러그가 있어서 원아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인형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장난감은 필요할 때 꺼내어 쓰도록 선반 위에 올려져있으며 적은 량의 교재 교구가 제시되어 있다.

### 나) 실내 환경

교실에는 원목으로 된 낮은 책걸상이 비치되어 있다. 원아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높낮이가 다른 책걸상이 배치되어 있다.

교실이나 복도 벽면에는 꾸밈없이 유아들의 활동 작품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으며 부모가 유아에 대한 정보(음식)를 적어 놓은 메모지도 있다.

복도에는 개인별 가방, 신발, 옷 등을 걸 수 있도록 오픈된 개인 사물함이 비치되어 있고 바로 옆 벽에는 앉아서 신발 등을 신을 수 있도록 낮은 턱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교실 외에 특별실(과학실, 휴식실 등)이 있고, 화장실에는 개인별 라벨을 붙인 양치도와 개인용 수건이 비치되어 있으며, 교사 협의실은 매우 협소한 공간에 초라한 타원형 탁자와 의자가 전부였다.

### 다) 실외 환경

유치원 바깥놀이터는 커다란 나무들로 숲이 조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에는 군데군데 잔디가 조성되어 있다.

커다란 나무에 굵은 밧줄이 달려있고 아이들은 그 밧줄을 타고 타잔놀이를 한다. 또한 원목으로 만든 집, 돌계단으로 만든 물놀이 터, 차양막이 있는 벤치, 동물모양의 시소, 통나무 의자, 나무그늘이 있는 미끄럼틀, 지붕이 있는 놀이 도구함,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빗물이나 동물들의 배설물을 차단하기 위한 천막이 쳐 있는 모래놀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쪽에는 작은 허브밭이 있어서 졸업반 유아들이 매주 1번씩 허브 말리기, 차 만들기 등 허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배운다.



아름드리나무들로 어우러진 실외놀이터



물놀이터



보호막이 덮인 모래놀이장



복도의 유아 소지품 정리 영역

### 3) 평가 방법

#### 가) 유아 평가

유아 평가는 따로 없으며 매일 유아들의 활동 및 관찰기록을 모아 학부모 상담 및 유아 지도에 사용하고 있다. 담임교사는 유치원 3년 동안의 교육활동 작품을 모아 두었다가 유아가 졸업할 때 가정으로 보내고 있었다.

#### 나) 기관 평가 및 교사 평가

기관이나 교사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사를 선발할 때 이미 평가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고, 유치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존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평가도 없다고 한다.

### 4)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학부모 도우미 모임이 있어 행사, 축제, 연극공연, 야외학습 등을 도와준다. 비영리 재단 설립으로 유·초·중·고가 함께 있어 연계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축제 등을 기념하여 실외놀이터에서 유아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와의 특별한 연계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다 Helichova Kindergarten

### 1) 유치원 현황 및 교육과정

유치원명	설립형태	종류	원아 수	교원 수	비고
Helichova Kindergarten	국립	만3세~6세 : 유치원	100명 혼합연령반 4학급	10명 정규직 및 파트타임	학부모 부담 : 수업료 65,000원

가) 위치 : 체코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다.

#### 나) 학급현황 및 교사현황

학급 당 25명씩 4학급 100명의 원아로 운영되며 1학급당 2명의 교사 체제이다.

## 다) 운영 현황

Helichova Kindergarten은 국립유치원으로 취원 연령이 만 3세~6세로 구성되어 있다. 6세가 되는 9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2016년 9월부터는 의무교육이 되어 취학 전 1년에 한해 의무·무상교육이 되지만 현재는 학부모가 약 65,000원 정도의 수업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Helichova Kindergarten은 만 3세부터만 입학이 가능하고, 그 이전 연령의 유아는 주변에 있는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된다. 이 유치원은 일반유치원으로 교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 라)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지역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치원마다 특색을 살리게 된다.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되는데 1시에 귀가하는 유아들이 있고, 간식 후 오후 3시에 귀가하는 유아들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오후 5시 30분이면 전체 유아가 귀가하게 된다. 교육과정 시간 후에는 미술, 스포츠, 음악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바) 교수·학습 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Helichova Kindergarten의 교육 내용은 교사가 큰 테두리를 정할 뿐 유아의 흥미와 욕구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유아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교사가 최대한 유아를 지원하고자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자기주도성에 의한 미술, 스포츠, 예체능 등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유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유아 주도적 교육방법이 유아의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신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사) 교사 양성 및 후생 복지

체코의 경우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꼭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다.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10명의 교사가 상주해 있으나 3명의 교사만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머지 7명의 교사는 직업전문학교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황이다. 유치원 교원의 직급은 원장, 교사 2개 직급으로 되어 있다.

## 아) 등·하원 방법

체코 유치원 거의가 유치원에서 통학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이 유치원 또한 부모의 책임 하에 등·하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자) 교육비 지원

2016년 8월말까지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교육비는 학부모가 월 65,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는 취학 1년 전 유아만 의무·무상교육이 실시된다.

## 2) 유치원 환경

교실 환경은 영역별 구성이 아닌 평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 및 장난감으로 비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신체활동 언어, 수, 사회 관련 범주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도 벽면 환경에는 문화교육 자료가 부착되어 있다. 실내에 신체활동 공간이 있으며 별도의 실외놀이터는 없었다. 화장실은 유아 신체크기에 맞게 남, 여가 함께 사용하는 구조이며 개인별 수건이 비치되어 있어 건강·안전 실천의 모습이 돋보였다. 유치원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단순한 구조이다. 벽면 환경은 유아의 작품 전시 위주의 심플한 구성이고 포트폴리오집을 소박하게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교사가 유아의 작품을 멋지게 보이도록 꾸미거나 장식을 한 환경 구성은 볼 수가 없었다.



개인위생 수건



잠자는 방



교실 환경



간식 시간

## 3) 평가 방법

체코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임 담임제도를 실시하며 교사 평가는 없다고 한다. 교사는 유아를 자세히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이를 초등학교에 생활기록부 형식으로 연계하여 이송한다.

## 4)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년에 2회 정도 학부모 설명회가 이루어진다. 지역사회와 프라하 1구역에서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실시하는 미술, 스포츠, 올림픽아드 대회 등에 유아들이 참여하고 있다.

## 라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

### 1) 유치원 현황 및 교육과정

유치원명	설립 형태	종류	원아 수	교원 수	비고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	사립	- 0세~6세로 구성 * 0세~3세 : 탁아소 * 3세~4세 : 유치원 * 5세~6세 : 유치원	70명 혼합연령반 4학급	10명 정규직 및 파트타임	

가) 위치 : 오스트리아의 잘쯔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운영 현황

오스트리아의 조기교육 및 보육 시설들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탁아소(careche), 유치원(kindergarten)으로 나뉘며, 0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제 보육시설 중 약 70%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이외에 종교, 비영리 단체, 회사 및 개인들이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있는 그룹 당 아이들의 수는 최근 몇 년간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추세이며 유치원이 86.7%를 차지해 보육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은 사립유치원으로 유아 수는 학급 당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0~3세, 3~4세, 5~6세 반으로 구분되어 있다. 6세는 8월 30일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비는 공립과 사립에 대한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부모가 가정이나 직장과의 거리 및 프로그램을 보고 유치원을 선택한다.

#### 다) 교육과정 운영

국가수준의 지침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세부 교육활동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장의 재량이 많이 허용된다. 이 유치원은 원장 재량에 의해 스포츠 관련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교육도 병행한다고 한다. 잘쯔부르크는 지역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스포츠 유치원에 맞게 수영, 자전거 타기, 썰매 타기 등 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전에 학교 수업이 끝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등원 시각은 7시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6시에 하원하고 금요일은 전체 유아가 4시에 하원한다. 이는 주말을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유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바깥놀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방문 당일에는 5~6세 유아가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사전 안전교육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보통 15킬로 정도 외곽으로 나간다고 한다. 오스트리아는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자전거가 생활화 되어서인지 유아들이 자전거 타기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교사와 유아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활동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는 1:2정도, 수영은 1:1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1:10이 되기도 하며 유동적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아이들이 걸음을 걷게 되면서부터 스키를 가르치며 이외에도 조깅, 썰매도 가르친다.

## 라) 교사 양성 및 후생 복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후생복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지만 공립유치원 교사의 지원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교사 양성제도는 대학과정이 아닌 5년 과정의 고등학교 전문유치원 교사과정을 거치며,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동등하게 65세까지 교사의 정년이 보장된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수준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립과 사립의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 마) 교육비 지원

교육비는 만 5세 취학 직전 1년만 무상 지원되며 만 4세 이전의 유아는 수업료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도 오전 교육과정만 지원이 될 뿐 오후 방과후 과정 운영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 유치원의 경우는 전체 유아가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므로 오후 방과후 과정만 운영비는 수익자인 학부모가 부담한다. 단 저소득층의 유아는 시청에서 수업료를 지급한다.

## 2) 유치원 환경

유치원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단순한 구조이다. 지하에 0~3세 놀이방과 체육실, 1층은 유치원, 2층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교실이 있다. 일반교실 외에도 주방시설이 있는데 급식은 각 반 교실에서 실시한다. 교실 환경은 영역별 구성이 아닌 평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재 및 장난감으로 비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개인별 수건이 비치되어 있고 벽면 환경은 자연물로 구성된 유아작품들과 환경게시물이 전시되었다.

실외 놀이터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조성하였고 특히 울창한 나무그늘 아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모래놀이터는 모래를 보호

하기 위해 보호망과 차광막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1년에 1회 모래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계단을 없애고 언덕을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설치하여 유아에 대한 배려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로 1~4세 어린이가 이용하고 5세 이상 유아는 주변 공원이나 숲을 이용하고 있다.

			
간식 시간	벽면 환경	스포츠 활동 시간	놀이터 모습

### 3) 평가 방법

오스트리아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임 담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아 개개인의 발달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높다고 한다. 교사 평가는 이미 양성기관과 교사 임용 과정에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기관 평가는 교육청에서 1년에 1번 정도 실시하고, 사립의 경우는 원장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 평가 결과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

### 4)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4세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근처의 스포츠 광장이나 놀이공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놀이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유아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상담하며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전자우편, 전화, 면담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아침 식사하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아들의 등·하원은 학부모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오스트리아 내의 타 유치원도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모교육은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설명회로 대신 하고, 연간 이루어지는 축제에 학부모가 참여하며 유아들이 휴가동안 학부모와 지낸 관련 사진을 유치원에 제출하여 전시하고 있다.

## 마 Izvidac Kindergarten

### 1) 유치원 현황 및 교육과정

유치원명	설립 형태	교육 대상	교원 수	비고
Izvidac Kindergarten	시립	9개월~만6세	25명 (1그룹에 2명씩, 8그룹) 정규직 및 파트타임	

가) 위치 :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에 위치하고 있다.

### 2) 유치원 환경

#### 가) 실내 환경

전체적으로 실내의 물리적 공간이 넓지는 않으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출입문 (운영시간 안내)	유치원 현관	공간을 활용한 사물 정리함	실내 활동영역

#### 나) 실외 환경

주변 공원이나 숲을 유치원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 베란다를 미술이나 블럭, 모래놀이 등의 영역으로, 1층 베란다를 대근육 활동 공간으로 연계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고 있었다.

			
교실과 연결된 대근육 활동 영역	덮개를 사용한 모래놀이	공원처럼 조성된 실외놀이장	유치원 정문에서

## 2. 방문 기관의 우수사례

### 가. 우리나라와 다른 부모의 역할들

첫째, 독일 유치원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다. 매일 부모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하원 지도, 9시까지 등원하기, 매일 급(간)식 준비,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 상담 활동, 부모회가 조직되어 교육 활동과 교육 기부 및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과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유아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부모와 함께 손잡고 걸어서 등·하원을 하는 유아들은 오고 가는 길에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했으며, 이런 경험들은 부모-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었다. 남보다 뛰어난 자녀를 길러보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하고, 한 걸음도 걷지 않으려고 골목골목 좁은 도로를 진입하여 집 앞에서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었다.

둘째, 우리나라 부모는 교육열이 매우 높으나 욕심이 앞서고, 너무 많은 부분을 가정을 떠나 교육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기관 모두 절반가량의 유아들이 반나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오후 시간은 부모들과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충분히 고려한 유아 본성에 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들도 상당부분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유치원에 보내고, 가능한 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모습 속에서 올바른 유아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 나. 아람드리나무들과 어우러진 실외놀이터

첫째, 자연 친화적으로 꾸러진 바깥놀이 활동 공간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깥놀이터의 아람드리나무에 달린 굵은 밧줄은 ‘타잔놀이’에 안성맞춤이었으며, 나무 그늘 아래 놓인 통나무의 긴 벤치, 통나무 의자, 나뭇가지와 식물로 만들어진 작은 아지트 등과 돌계단으로 만든 물 놀이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설치되어 유아의 흥미와 과학적인 사고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자연과의 교감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정서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화려한 궁전 같은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네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

둘째, 모래놀이터에는 모래 보호막과 함께 나무그늘이 만들어 낸 자연차광막까지 결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언제든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무 그늘로 자연 차광이 드리워져 있고, 모래 보호막을 설치한 상황에서 유아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래놀이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 다.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

첫째,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독일 유치원에서는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 영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5개의 낮은 계단을 올라가 자리에 눕도록 하고 교사는 그 과제를 해결한 영아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교육적인 지도가 우리와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많이 놀라웠다. 이곳의 유아들은 아침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마친 후 그릇 가져다 놓기,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 정리하기 등 공동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자립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었고, 주마다 교육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충분한 자유놀이와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중 자신이 무엇을 하고 놀 것인지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정답이 없는 답변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 교육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셋째, 짧은 시간의 참관과 몇 가지 질문으로 모든 교육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소그룹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엿볼 수 있었다. 4~5명의 유아들이 소그룹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며, 이때 유아가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유놀이 시간 동안 모든 학급이 오픈되어 있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놀이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학급 운영 시스템,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 제공, 유아들의 놀이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각각의 전담 교사들과 보조 교사로 보이는 선생님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넷째, 비가 왔다 그쳤다 반복하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날씨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자전거타기' 활동이 실제상황으로 진행되었다. 유아 7명에 교사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간단한 브레이크 잡는 방법만 주의시킨 후 유치원 밖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모든 유아들이 수영과 스키 타기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장화, 우산, 비옷 등과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상비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바깥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사회성과 문제해결력 등의 전인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 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유아교육자들

첫째,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72세 연령의 원장 선생님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하는데도 그 유치원의 원장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얼룩이 다소 묻어 있는 티셔츠와 바지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분으로 보여 질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며 외모는 극히 검소하지만 본질에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받았다.

둘째, 유아가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연임하는 담임제도는 유아들의 발달 상태와 재능을 파악하는데 유리한 조건이었다. 각 유치원에는 교육활동 전담 교사(학급 담임, 프로젝트 전담, 요리활동 전담 등)와 보조 교사가 있어서 아이들의 자유놀이와 교육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적절한 유아 대 교사의 비율, 유연성이 있는 학급 운영 시스템, 충분한 자유놀이 시간 제공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

셋째,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은 우리와 조금 달랐지만 양성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교사들만 자격을 받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따로 마련

되어 있지 않은 동유럽의 교사양성 제도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마. 거시적 관점의 책임감 있는 육아정책**

체코 정부의 정책적 양육 지원 방법이 출산 장려 정책이기도 하며 또한 유아교육의 핵심처럼 다가왔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기를 가정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만 3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은 책임감 있는 육아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양육 하에 영·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은 기관에 와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활동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에 행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렇게 행복한 아이가 그 나라의 행복한 주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 **3. 전북 유아교육의 적용방안**

#### **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유치원 교육을 위해**

첫째, 가능한 한 통학차량 이용을 지양하고 부모의 책임 하에 유아들이 걸어서 등·하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둘째, 원아모집 시 가정과 가까운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도록 하는 문제와 일정 거리 이상의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할 허용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해 본다.

셋째, 단위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단위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 시 안내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학부모 인식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유치원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 제공 및 교육기부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한다.

다섯째, 학기 중 및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실외놀이터 조성을 위해**

첫째, 신·증설유치원 설립 시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살린 나무가 울창한 공원 같은 환경에 실외놀이터를 조성했으면 한다.

둘째, 실외놀이터 놀이 환경 구성 시 조합놀이대 및 우레탄이 깔린 바닥재 설치를 지양하고 친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신·증설유치원 설립 시 실내·외 공간의 효율적인 설계와 건축을 위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해야 한다.

#### **다.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첫째, 자유 놀이 및 교육활동 과정에서 유아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과 자립심을 신장하도록 한다.

둘째, 단위유치원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주 1~2회는 유연성 있는 학급 시스템 운영으로 옆 반 교사와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나누어 팀티칭 교수·학습을 실시한다.

셋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놀이·체험중심 교육활동 운영을 확산하고 우수 유치원을 일반화한다.

#### **라.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첫째, 유아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외의 행정적인 업무절차 간소화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교사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 활동은 지양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소그룹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급당 보조교사(자원봉사자)를 지원해야 한다.

#### **마. 책임감 있는 육아정책 입안을 위해**

첫째,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근시안적 정책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정책 지원을 통해 유아 발달을 고려하고 정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유아교육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본다.

둘째, 유아교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묻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 IV. 연수국 역사·문화 체험



### 1. 독일

#### 아름다운 시청으로 유명한 뮌헨

뮌헨 관광의 핵심이자 시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엔 광장. 광장의 중앙에는 막시밀리안 황제가 30년 전쟁 시기인 1638년에 세운 마리아의 탑(Mariensaule)이 있다. 광장 동쪽에는 구 시청사, 북쪽에는 뮌헨의 랜드마크인 신 시청사가 있다. 신 시청사는 1909년에 완성된 네오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다. 매일 하루에 2~3번 시계탑에서 인형이 나와 춤추는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광장 남쪽의 성 페터 교회는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 교회이다. 뮌헨 프라우엔 교회와 신 시청사에도 탑이 있지만 이 교회의 탑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가장 멋있다. 종탑 높이는 85m에 이르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뮌헨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광장 주변에는 비어홀이 곳곳에 있으며, 카페와 레스토랑, 쇼핑센터도 많다. 하루에 1만 리터의 맥주를 소비한다는 유명한 비어 홀 호프브로이하우스에도 둘러보면 광장 남동쪽 도보 5분 거리의 재래시장 빅투알리엔 마르크트에서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거나 기념품을 살 수도 있다.

프라우엔 교회는 1945년 2월 13일 2차 세계대전 시 폭격으로 무너졌고 불덩이는 카타콤까지 번져 모든 소재들이 불타버리는 불운이 따랐다. 포격으로 무너진지 45년이 된 1990년 2월13일 프라우엔 교회의 재건을 결정하고 1993년 과거의 잔재를 치우기 시작하여 1994년 5월27일에 재건을 위한 착공을 하고 2005년 10월 30일 축성식과 함께 완공이 되어 의젓한 모습으로 뮌헨 구시가지 중앙에 우뚝 서게 되었다.

### 2. 체코

#### 낭만의 나라 체코

천년의 역사를 가진 백탑의 도시 프라하는 전 세계 여행객들로 시끌벅적 했으며 어디를 가든 예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구시가지의 틴 교회, 대통령 관저로

이용되고 있는 프라하 성, 성 비투스 성당 앞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서기 925년에 짓기 시작해 1000년 후에 완공된 성 비투스 대성당의 높은 천장과 대형 아치형 창문을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우리를 압도했다. 1968년 민주화를 요구하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을 옛 소련이 무력으로 짓밟은 ‘프라하의 봄’은 대학생 두 명이 분신자살하고 100여 명이 희생된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모국어인 체코어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또한 눈물겨웠으며 낭만 속에 담긴 프라하의 슬픔을 새삼 알게 되었다. 성 프라하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고 구시가지와 신시가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걸어서 충분히 둘러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트램을 직접 타 보았다. 구시가 광장에는 체크 현대사를 상징하는 웅장한 첨탑의 틴 성당, 청사와 천문시계 등 볼거리가 많았다. 성으로 올라가다 보면 근위병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프라하의 성 입구이다. 9세기에 처음 세워진 프라하 성은 프라드찬스케 언덕에 위치하며 아름답고 낭만적인 프라하 전경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 3. 오스트리아

#### 선율에 취하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 잘쯔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이며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하고 암염광산 때문에 소금(Salz)의 성(burg)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이다.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모여 있는 건물들의 모습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산과 들만큼 청동색의 돔으로 장식된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은 자연과 문명이 서로 배려하며 닦아 역사 깊은 도시라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다.

미라벨 정원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가 아이들과 함께 정원을 배경으로 도레미 송을 부르던 장면을 떠올리게 했으며, 시원한 분수와 하늘을 향해 솟아있던 바로크 양식의 건물과 꽃이 흐드러진 정원은 휴식과 상념의 공간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면 유럽에서 가장 큰 요새인 호헨잘쯔부르크 성이 우뚝 솟아 있고, 구시가지에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빛바랜 생가를 볼 수 있다. 모차르트가 생활했던 생가를 돌아보며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와 악보를 직접 보고 음악을 들으니 마치 모차르트를 만난 듯 음악적 감성 그 무엇인가가 와락 가슴에 안겨왔다.

## 4. 슬로베니아

### 호수위에 솟아 있는 블레드 성

유럽의 동남쪽 발칸반도, 아드리아 해 연안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유적지가 많은 다른 유럽 도시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사랑받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국토의 북쪽에는 울리안 알프스가 늘어서 있어 발칸의 녹색 정원이라고 불린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은 블레드 성이다. 블레드 성이 최초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1011년 5월 22일 독일의 왕 헨리2세가 브릭센의 주교 아델베론에게 이 땅을 하사한 때이다. 호수 위로 솟아있는 성의 모습과 낭만적인 블레드 섬과 그 섬에 위치한 성당은 블레드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이끌었다.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의 내부에는 ‘행복의 종’이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남편을 기리기 위해 이 성당에 종을 달기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 교황청이 그녀를 위해 종을 기증하면서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녀가 남편을 기리는 마음처럼 종을 치면 사랑의 행운이 온다고 해서 인기가 높아졌다. 그 이유로 함께한 우리 연수팀도 각자의 행운을 담아 종을 쳐 보았다.

## 5. 크로아티아

### 천혜의 자연 경관을 품은 플리트비체국립공원

플리트비체국립공원은 크고 작은 16개의 호수로 구성되어 있는 석회침전물이 쌓인 호수이다. 햇빛의 각도와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보인다는 물의 빛깔은 어떤색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닥까지 흰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를 감상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곳이었다. 지구 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데 과연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곳이었다.

### 아드리아 해의 항구도시 스플리트

달마티안의 고장이기도 한 스플리트는 아드리아 해의 항구도시이다. 해안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이곳이 항구도시임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다.

세계문화 유산인 스플리트 구시가지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 후 남은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은 궁전이 있고, 1700년 전에 세워진 고풍스러운 성벽 안쪽 구시가지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성벽의 아치 틈을 막아 주거지를 만들어 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크게 동서남북 4개의 문으로 구분 짓는데 지금 바닷가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는 남문 쪽은 예전에는 배를 이용하여 접근해야 했지만 지금은 독과 땅을 매립하여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궁전의 북문으로 나오면 크로아티아의 종교지도자였던 그레고리우스닌의 동상이 서있는데 동상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만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우리 연수팀도 모두 건강하게 유익한 연수가 되기를, 그리고 각자의 소원들을 빌어보았다.

## 해상 무역의 중심지 두브로브니크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한때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유일하게 경쟁했던 해상무역 도시국가였다.

하얀 대리석이 깔려있는 플라차 거리, 스폰자궁, 시계탑, 렉터궁전 등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 문화체험을 통해 중세시대의 건축양식들을 볼 수 있었다. 시계탑 앞 시청 광장에는 롤랑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이도시의 평화와 독립을 상징한다고 한다.

구 시가지를 나와서 우리는 배를 타고 눈이 부시도록 푸른 아드리아 해의 물빛을 따라 두브로브니크의 성벽과 누드비치를 돌아보며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 6. 보스니아

###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사라예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는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도시이다.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 청년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여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결국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저격을 받은 장소이자 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된 라틴다리에 가보았다. 황태자를 저격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숨어 있다가 뛰어 나왔던 카페를 지금은 당시의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사용하여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었다. 황태자를 저격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장례식 장면 등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사이의 민족·종교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보스니아 내전으로 이어졌다. 발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유럽의 화약고로 불렸던 사라예보는 1991년에는 세르비아군의 저격수들이 높은 언덕 지대에서 도시를 지나는 시민들을 무차별 저격하여 시민들이 지하 땅굴을 이용하여 생활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내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1984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올림픽 경기장이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20여 년 전 내전 때 파괴된 건물들과 전쟁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으며 현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벽에도 포탄 자국들이 선명해서 그 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다.

## 7. 세르비아

### 하얀 도시 베오그라드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는 다뉴브 강과 사바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으며, 베오그라드는 크로아티아어로 하얀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스만 튀르크의 군대가 침공할 때 멀리서 보이는 칼레매그단 성채가 하얗게 보여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미하일로왕의 거리에는 유서 깊은 사보르나 정교회가 있는데 내부 입장이 허용되지 않아서 정문 입구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1831~1841년에 지어진 이 교회에는 밀로스왕과 미하일로 여왕의 묘가 있다.

이 교회 건너편 골목길에 있는 오래된 카페의 간판에는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사보르나 교회 카페라고 간판을 걸었는데 술을 파는 가게 간판에 교회이름을 넣을 수 없다는 교회의 반대로 가게 이름을 바꾸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다른 이유들로 이름을 바꾸다가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물음표를 간판에 넣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이 간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판이 되었다.

구 시가지를 걷다보면 소설가 주레맙스타의 청동상을 볼 수 있는데 무릎만 반질 반질해서 물어보니 무릎을 만지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은 설이라고 한다.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 우리도 무릎을 한 번 만져보는 역사에 동참을 하고 왔다.

## V. 국외연수 후기



### 더 많은 교육이 아닌 더 많은 삶의 경험을 주리라

원장 박00

강산이 세 번 하고도 반이 넘게 바뀐 긴긴 세월을 살다보니 국외연수라는 큰 행운이 찾아와 날 설레게 했고 36년의 교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참 수고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유치원 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꿈꾸는 놀이체험중심, 숲 유치원, 발도르프 유치원 그리고 유치원 창시자인 프리벨이 생각나면서 내내 가슴이 뛰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독일 유치원들은 나의 초임교사 때 모습과 흡사했다. 아침이면 부모님과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아이들의 모습, 역사를 말해주는 큰 나무와 숲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유아들의 모습, 자전거를 타러 공원으로 나가는 유아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은 80~90년대 우리 유치원의 모습과 같았다. 봄이면 들로 산으로 꽃구경을 가고, 여름이면 냇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밤 주우러 산에 가서 땅 벌집을 건드려서 놀랐던 일, 겨울이면 손발이 쫄쫄 얼도록 뛰어다니며 놀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전라북도 유아교육도 정신없이 달려가다 현재 ‘일단 멈춤’상태이다. 그건 전북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속도의 문제가 아닌 방향의 문제를 바로 잡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2016년 전북 유아교육이 강조했던 놀이와 체험중심 교육과정, 자연과 연계한 교육활동 운영, 도란도란 책 놀이터 등이 바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창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질 높은 프로그램, 환경적 여건 등 모두가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의 마인드가 바뀌고, 무엇인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사의 열린 마음이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외연수 동안 내 마음은 많은 갈등과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는 질문들로 고민이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교사, 학부모, 유아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유치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자인 ‘바로 나’부터 생각을 성형하리라 다짐하며,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 동안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한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로서의 길을 가는 내내 좋은 길동무가 되고자 기대해 본다.

## 본연의 목적대로의 아름다운 모습들

원감 곽00

이번 국외연수는 다른 나라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다. 독일에 있는 두 곳의 유치원 방문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독일 유치원에서 본 부모님들의 모습과 아름답드리나무들로 어우러진 실외놀이터의 모습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첫째는 부모와 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유아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모습이였다.

매일 부모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하원 지도, 9시까지 등원하기, 매일 급식 준비,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 상담 활동, 부모회가 조직되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 기부 및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과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유아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서 등·하원하는 유아들은 오고 가는 길에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했으며, 이런 경험들은 부모-자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은 육아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을 돕는 기관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뿐 아니라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와 동참을 유도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는 아름답드리나무들로 어우러진 실외놀이터의 모습이였다. 천편일률적인 화려한 궁전 같은 지붕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우리네 유치원의 놀이터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

160년 전통을 자랑하듯 울창한 나무에 달린 굵은 빛줄은 ‘타잔놀이’에 안성맞춤이었으며, 나무 그늘 아래 놓인 통나무 벤치, 통나무 의자, 나뭇가지와 식물들로 만들어진 작은 아지트와 높고 낮은 언덕들, 돌계단으로 만든 물놀이터 등은 유아의 흥미와 과학적인 사고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장소였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같은 실내·외 공간이지만 그들은 억지스럽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러움을 살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아름다움과 각자 맡은 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 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

교사 신00

교육 사상가 프리드리히 프뢰벨에 의해서 세계 최초 유치원 ‘킨더가르덴’이 탄생한 독일에서는 어떻게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 다녀왔다.

독일의 뉘른베르크는 인구 50만, 70여개의 유치원, 15개국의 다양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외국인이 다소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 이번에 방문한 두 곳 유치원은 여름축제 기간이어서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은 남았지만 교실 벽면에 유아들의 활동 작품들이 꾸밈없이 그대로 전시된 모습을 보면서 의외로 자연적인 환경과 자유로운 분위기에 놀랐다.

첫째는 자연과 함께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는 바깥 놀이 환경이다.

바깥놀이터에는 커다란 나무들로 숲이 조성되어 있었고 순수한 자연 속에서 얻은 원통 통나무, 나무그네, 오솔길 같은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리는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커다란 나무에는 굵은 밧줄이 달려있었다. 아이들이 그 밧줄을 타고 타잔 놀이를 한다고 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을 살리는 놀이터에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둘째는 놀이를 통해 개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독일 유아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놀이중심 교수방법이고 인성교육과 생활습관 교육, 친구사귀기를 비롯한 사회성 교육을 중요시한다. 방문 유치원에서는 유아 개개인이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4~5명의 소그룹으로 프로젝트에 스스로 참여 한다고 한다. 놀이를 통해 스스로 탐구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놀이 하고 충분히 놀 수 있도록 하는 독일 유치원 교육활동을 알아보면서 우리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게 된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새싹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교육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교사의 열린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외국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말씀은 오래도록 나의 가슴에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었다. 교사로서 반성적 사고와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 해보고자 한다.



## 동유럽의 문화와 발칸의 숨결을 느끼다

---

교사 최 0

2016년 여름방학에 나는 국외연수생들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최초로 주장한 마틴 루터의 나라 독일을 필두로 동유럽 국가들과 발칸반도의 유아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독일의 유치원 두 곳은 대체적으로 실내 환경은 다소 실망감을 주는 환경이었지만 실외로 나가보면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조성되어 있는 바깥놀이터가 있어서 심히 부러웠다. 유치원을 지을 때 심은 나무라기보다는 아예 숲 속에 유치원을 세우고 가꾼 모습 같았다. 우리도 애초에 숲을 이용하여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아기부터 자연에서 배우고 놀면서 인성을 다져가는 이곳 독일의 숲 교육을 전라북도 유아교육에 적극 적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독일의 원아 등·하원 시스템 및 급식 지원 형태가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버스로 전체 원아의 등·하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의 유아교육기관은 모두 개별 등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학부모도 이를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치원버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데려다 주고, 자녀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정부는 부모에게 본연의 역할을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

한편 교육기관의 방문과 동시에 동유럽의 아름다운 건축물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1,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지 않은 프라하 도시에서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가톨릭 성당과 웅장한 이슬람 사원의 건축물을 볼 수 있었다. 로마네스크양식,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등의 건축문화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더 뜻 깊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를 관광하면서 건물에 총탄이 박힌 채 복구를 못하고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탄피를 이용하여 관광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그 곳 사람들의 가난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국외연수를 통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국외연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자연과 함께 크는 아이들의 천국

---

교사 박00

꿈만 같은 열이틀이었다.

하늘 향해 쪽쪽 뻗은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과 초원을 스쳐 보내며 대여섯 시간을, 과수와 채소, 꽃이 있는 경작지를 사이에 두고 또 그렇게 대여섯 시간을 버스를 타고 달렸다. 숲 아래 잘 다듬어진 목초지, 그곳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와 소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빨간 지붕을 가진 하얀 집들,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독일의 유치원의 모습은 너무도 평화롭고 자연스러웠다. 원장과 원감은 꾸미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먼 나라에서 온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직접 구운 빵과 차는 방문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교사는 우리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열중이었다.

유치원은 생각보다 좁은 실내에 유아들의 작품이 삐뚤삐뚤 걸려 있었고 개인 사물들이 모두 복도나 세면실에 줄줄이 걸려있었다. 대부분 나무로 만든 오래된 책걸상, 다양한 모양의 코너장이 조금 있고 바구니에 담긴 장난감이 바닥에 놓여 있어 유아들이 사용하기 매우 편안하게 보였다. 정리가 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질서가 있고 자연스러웠다. 밖에서 신었던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교실로 들어가 활동하였고, 예쁜 보자기가 깔린 식탁에는 음식이 담긴 예쁜 사기접시와 우유가 담긴 유리컵이 놓여있었다. 적지 않은 원아들이 있었지만 유아들이 모두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실외 놀이터는 백년이 넘은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이십여 그루 정도 있었고 그 아래 훌륭한 놀이터가 있었다. 이곳은 정말 아이들의 천국이 아닐까 할 정도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 및 도구가 있었고, 유아들 서너 명이 들어갈 정도의 몇 채의 작은 집들은 요정들의 집인 것만 같았다, 나무위의 집과 물놀이, 모래놀이 등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만 놀아도 좋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이었다. 어른도 놀고 싶은 너무나 탐이 나는 놀이터였다. 우리가 방문한 모든 유치원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실내보다 실외가 잘 조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숲들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터인 것 같았다.

다섯 개의 유치원과 일곱 나라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느껴 보았다. 그러나 박물관 견학, 문화공연 관람 등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졌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글로벌한 세계관을 키워주는데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유치원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특히 신설되는 유치원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숲을 만들어주자.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유치원도 숲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어 인성과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되도록 해주자.

둘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지금의 반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발달한 유아교육이 체증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과한 장난감과 너무 과한 가르침들, 너무 과한 학부모의 이기적인 관심, 너무 과한 지원, 너무 과한 현장학습 및 행사들, 교사들에 대한 너무 과한 요구 및 평가 등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천천히 기본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 고민하며 나라와 부모와 유치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

## **체계적인 교사양성으로 유아존중 교육을 실현하는 유럽의 유아교육**

### 교사 정00

유럽의 교육은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아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분야에서 이상적인 교육으로 손꼽힌다. 과연 어떤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번 연수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안고 유럽 선진화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다.

유럽의 여러 유치원을 방문하고 관계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관된 활동지와 교사가 의도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는 사뭇 다른 면이기도 하다. 자율적인 활동이 가장 이상적이고 유아중심의 교육임에는 동의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방임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의 유치원들에서는 그 해결책을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찾은 듯 보였다. 한명의 교사가 5명~10명 이내의 유아를 교육하는 인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유아의 선택에 대한 교육적인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개성

존중 교육의 이상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자연에 녹아든 교육환경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바깥놀이시설이 종합놀이 시설로 일괄적인 우리나라의 유치원들과 달리 유럽의 유치원들은 통나무, 오솔길,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공간으로 바깥놀이터를 구성하고 있었다. 투박한 나무 벤치, 우거진 나무, 넘어진 통나무 등을 매력적인 놀잇감으로 여기고 배치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소소한 위험이 존재하는 놀이터에서 놀이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치지 않고 노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고, 이는 더 큰 위험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자연적으로 터득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인의 보호와 안전한 환경 제공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것도 역시 성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질 관리이다. 유럽의 교사는 교사 평가 방법에 대해 묻는 우리나라 교사들에게 의아하다는 시선을 보냈다. 자신은 이미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한 교사인데, 왜 자신을 평가하며, 누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과 실습 과정을 통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요구하되, 교사가 되는 순간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학부모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함께하는 조력자와 협력자로서 교사를 대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다소 간소한 절차로 교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일선에서 끊임없는 재교육만이 교사의 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양상이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여러 재해와 세월의 흐름에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마련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교육자로서의 품성, 자질,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실습의 과정을 거쳐 교사 양성을 한다면 최소한의 교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사로서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물음표를 던져주는 경험이었다. 교사 개인이 단위유치원에서 변화시키고 이를 수 있는 환경 구성, 수업 진행, 상호작용 방법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수립, 지원에 대한 것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연수였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더 많은 나라의 더 좋은 교육을 경험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발전하는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복한 삶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원감 문00

5월 7일 업무포털 시스템에서 국외연수 공문을 접수하고 5월17일 공문 발송하기까지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설렘이 진행되는 듯 살포시 미소가 지어진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국외연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이상으로 국외 연수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고 정말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함이 먼저 밀려온다.

30여년 경력의 유아교육자인 나는 늘 자신에게 묻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나만의 과제가 있었다. 유치원에서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교육하건만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모습에서, 이번 국외연수에서 반드시 그 해답을 찾으리라는 기대를 가득안고 출발했던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발자취가 그대로인 동유럽은 가는 곳 마다 문화 유적지였고, 온통 녹색 세상인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선택받은 엘도라도였다. 가는 곳마다 산소 같은 순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멋진 광경! 그러나 정작 나를 더 빠져들게 했던 것은 바로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그들 자신에게 집중하는 태도였다.

7월 13일, 우리 팀은 세 번째 공식 방문 유치원인 체코 헬리코바 킨더가르텐에 도착했다. 그 방문 시각에 유아들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지하 계단에서 2층 낮잠실로 이동하고 있었고 누구 하나 말소리 내지 않고 질서 정연한 가운데 이동하였다. 또한 낮잠을 자기 위해 교실 바닥에 비치된 개인 패드 위에 앉아 자기 스스로 양말과 겹옷을 벗어 정리하였다. 누구 하나 '선생님!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내 거 가져갔어요.' 등의 어떠한 말도 찡그림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는 것! 집중이 자율이 되었고 자기주도성으로 연결된다는 것! 발달 단계를 그대로 행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피아제의 전조작기, 몬테소리 여사의 민감기가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좋아하는 '집중'이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7월 14일, 네 번째 공식 방문 유치원인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에 위치한 Eder monika Sport Kindergarten의 아이들을 만났다. 그 아이들 또한 외래객 방문에도 자신의 활동에 집중했던 태도에서 우리나라 교육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교사가 외래객과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눔에도 누구하나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자세를 바꾸지 않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과는 왜 달라야 하는가? 자신의 활동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른 아이를

상관하고 간섭하는 아이들, 정답만을 요구하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며 자신의 활동을 교사의 잣대에 맞추는 모습. 타율적이기에 불안정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고 나로부터의 출발인 자기 주도성을 갖추도록 방법적 모색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들 교사들의 모습은 왜 맨날 바빠야 할까?, 왜 활동의 주도권을 교사가 꼭 쥐고만 가야하는 것일까?, 교실에서 교사 주도의 교육 방법을 유아들이 필요를 갖고 철저히 유아 중심으로 시작점에서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에 순간 내가 부처라도 된 듯 작은 깨달음에 아니, 해답에 유레카!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체코는 오늘의 모습이 어찌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가정교육을 중시한 국가정책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체코의 육아정책도 역시 해답처럼 다가왔다.

이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만 36개월 동안 엄마가 집에서 기르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 등의 공동육아시설에 보낸다 하였고 직장을 쉬고 아이를 기르는 엄마에게는 정부가 어른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정부나 회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잘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은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했고 그러하니 이 나라에서는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유치원이 부족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으리라. 또한 36개월 동안 엄마 품에서 자란 이 아이들의 자아 또한 탄탄하리라. 그러기에 남을 상관하는 모습이 아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의 전개가 되도록 유아교육자의 노력과 거시적인 안목의 국가 육아정책의 펼침으로, 자신을 먼저 알고 안정된 나 그리고 편안함으로 안정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

‘개인의 행복한 삶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에 그 가능성은 점차 실현되었고 나의 몫이겠지! 라는 책임감과 기대감으로 마음 정리를 해본다.

끝으로 동유럽 유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라북도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장학관님, 장학사님, 관련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던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해야겠다. 행복한 유치원, 행복한 아이가 꿈꾸는 세상! 미래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행복 지킴이로서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책임감 있는 열정적 자세를 재차 다짐 해본다.

## 가슴 벅찬 동유럽의 감동이 한국에도

---

수석교사 김00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선진화 국외연수라는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아 출발 전부터 그 누군가에게 괜히 미안할 정도로 고마운 기회라고 여기며 유아교육 선진화 연수에 기대를 안고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유럽 지역의 유치원 현장과 아름다운 자연, 문화유산을 돌아보며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 행복 플러스 요인을 되새김해 본다.

동유럽의 유아교육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실내 환경과 인공적이지 않은 실외놀이 환경이 인상적이었다. 자연 친화적인 실외, 어떤 곳은 숲을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실내 환경은 유아들에게 그리 교육적이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유치원이 더 선진화된 모습임을 알았다. 무엇보다 학급당 교사가 2인 배치되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치원마다 개성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역력한 상황으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유아 중심, 유아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임을 느꼈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이거나 평가 지향적이지 않아 교사들의 자율성과 여유도 많아 보였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정의 협조 사항이 많아 가정과의 연계가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동유럽 일대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천년이상의 견고한 건축물도 많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쉽고 빠르게 세워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과 인내로 세워진 전통 건물들은 그 나라의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 전승에 큰 힘이 될 것 같다.

외국에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하여야 하고 단순히 겉모습만을 가져올 일이 아니라 그 마인드를 같이 도입하여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견고하여 장구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듯 유치원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교사의 수업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수업연구와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유아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사고력이 높아질 것이며, 지속적인 인성지도에 따라 바른 인성이 형성되어 한 가지를 해도 바르게 진정성 있는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다.

환경면에서 활동의 편리성, 용이성, 실용성을 고려한 유치원 환경정비를 하면서 보여 지는 부분의 강조보다 유아와 교원 모두 편리하게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고능력과 관계 지향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부모교육면에서 보면 자주 모여 교육을 한다거나 통신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 유아교육 활동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몫이 주어지면 가정과의 연계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더불어 모두 책임져야 함을 실감나게 크게 느낀다.

가정, 사회, 교육, 문화 등 기초부터 견고히 세워가는 중요함을 느껴보면서 그렇게 할 때 결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시행착오도 최소화 될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참교육의 조상으로 남을 것이다.

유럽의 전통문화를 보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주체성 있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 깊은 한국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생활할 것인지 또한 의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크나큰 은혜와 배려를 받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미력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대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한 유럽의 전경과 유치원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가슴 벅찼던 동유럽의 기운을 유아교육 현장에 어떤 형태로든 녹여내며 최선을 다해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아이들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

교사 김00

동유럽 해외 유치원 탐방 길에 오르며 나는 많은 것을 기대했었다. 어린 시절 소풍전야의 설렘에 잠 못 들던 학창시절처럼 비행기를 타는 순간까지 부푼 기대에 여행용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내 교육스타일에 행여 많은 오류가 발견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었다. 그러나 동유럽 유아교육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것은, 수준 높은 가르침 보다는 스스로 알게 하는 것, 손잡고 이끌기보다는 홀로 달리는 아이에게 응원해주는 것, 인위적인 울타리보다는 자연 속에서 숨 쉬게 하는 것, 지식교육보다 인성과 감성교육이 우선이었다.

방문했던 동유럽 유치원 대부분은 서열식, 단체식 일괄교육이 아니었다. 교육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유치원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나라의



유아교육에서는 창의력 배양과 상상력 증진에 바탕을 둔 탈무드식 자율교육이 가져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거대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연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첫째, 스포츠 유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루 15킬로 정도의 시내 투어를 자유스럽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어린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교육이 어항에 물고기를 가두어 놓고 시간되면 먹이를 주고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에 비해, 그들의 교육은 넓은 개울에 풀어 두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아 주고 격려하고 기다려 주는 교육이였다.

둘째, 에드 모니카 스포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이였다. 이 유치원에서는 자전거, 스키, 썰매, 수영기술을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는 건강한 신체는 물론 자연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창의적인 상상력을 제공해 주므로 우리 유치원에서도 안전교육과 함께 지역 사회의 여건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부모가 유치원까지 동행하는 등·하원 문화,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같은 교사가 담당하는 책임 담임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좋은 제도로 보였다.

동유럽과 한국 유아교육의 차이점은 서당식 교육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등장하는 말괄량이 수녀 지망생 마리아의 제독 자녀들에 대한 자율교육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동서양의 환경,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다른인데 우리의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그들의 장점은 유입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본질이 아름다웠던 여정

---

교사 권00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 생각했던 꿈같은 ‘국외연수’라는 귀한 기회가 내게 찾아왔다. 근래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워진 경험인데, 다른 나라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내게 온 것이였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유치원 방문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였다.

첫째, 유아의 안전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이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배려한 출입문 잠금장치, 말굽걸이, 놀이터 그네 마감재에서 보여 지는 안전장치, 모래놀이장 덮개, 그네의 모양 등 세세한 것들에서 그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를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사회 전반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유치원이 교육기관임과 동시에 부모의 양육을 돕는 기관이라는 인식 변화로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교사의 양성과정에서 볼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신뢰였다.

우리는 짧게는 1년 과정부터 시작되는 보육교사부터 교사양성과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을 조사한 바로는 ‘중간학교를 졸업한 후 2년간 직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년간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전실습을 해야만 3년제 유아교육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년제 교육기간 중 2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 1년은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여 실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중 1주일에 2회는 학교에서 160시간을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1년간의 실습기간이 끝난 후 시험에 합격해야 국가가 인정하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교사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들의 반응은 있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미 인증되었고 검증되었는데 무슨 평가가 필요하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렵게 얻은 자격이 ‘신뢰’로 돌아오는 대답이었다.

셋째, 형식이나 남의 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모습이었다.

맨 처음 들어간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사물함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들 유치원의 사물함과 사뭇 다른 모습이 낯설기도 하면서 ‘그래, 저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실용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신발과 가방 등 유아의 모든 물건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사물함. 제작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다 거북하지 않은 무척 흥미로운 사물함이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가는 유치원마다 모양은 달랐지만 같은 스타일의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네 정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변화를 주게 되면 일단 입구부터 손님 맞이를 위해 단장을 하게 된다. 단장을 위한 약간의 예산은 필수지만...

하지만, 난 조용히 ‘빙고’를 외쳐보았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꾸밈보다는 있는 그대로에서 보이는 아름다움, 뭐니 뭐니 해도 본질이 아름답더라! 내 본분을 다 하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감사한 여정이었다.

## 행복을 꿈꾸는 유치원

---

수석교사 박00

최근에 우리는 「행복」 「행복교육」 이 화두가 되고 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 지원 무상교육, 무상급식, 만3·4·5세 국가수준의 누리과정 실시, 고학력 유치원 교사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행복교육」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의 영유아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진 외국의 아이들은 행복할까? 그곳의 영유아의 행복한 생활공간은 어떨까?’

우리는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선진 외국의 유아교육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

산과 하늘, 바다, 자연이 조화를 이룬 낭만적인 풍경들은 많은 시간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쳐 깨지고 상처 난 마음들을 순간순간 치유해주고 여러 나라의 유치원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주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유와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는 나라의 유아들이 놀며 배우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각 나라의 유아교육 정책, 유아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 체제, 부모교육 등 다각적인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가 살펴본 유치원의 대부분은 외형적인 물리적 조건을 충족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유아들의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다져질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과 행복한 감성의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행복 교육을 실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정글을 연상하게 하는 실외놀이 환경, 유아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테라스, 2층과 직접 연결된 유아들의 놀이터 등에서 학습 보다는 놀이를 중심으로 유아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등·하원을 통해 부모-교사와의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유아교육의 효과가 증대되고 다양한 민족, 문화, 종교로 구성된 사회의 특성을 살려 부모의 재능 기부를 통한 부모 참여 수업 등은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고 생각 되었다.

정신적 힘이 되어주는 종교적 이념 속에서 시대의 우여곡절의 흐름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전 속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문화적 체험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를 품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순간순간 전통의 맥을 이어주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가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였다.

긴 시간 같은 곳을 향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유아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 유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유치원이 추상적인 공간인가,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인가?’등을 자문하며, 나의 작은 실천이 유아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 정책, 물리적 환경 등은 유아들이 충분히 행복해 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한 명 한 명의 유아가 사랑과 신뢰를 쌓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유치원」이라는 곳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닌 「구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있는 장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잠깐의 실수로 교육 현장이 ‘장소의 상실’로 이어질까하는 두려움을 가지며, 유아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 공간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이 행복을 꿈꾸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 하면서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충분히 갖추어진 외적 조건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행복한 유아로 성장한다는 전제 하에 체계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

## 성찰의 시간

---

장학사 윤00

전라북도에서만 28년 넘게 유아교육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자신의 현 주소에 대해 고민해 왔다. 물론 타시·도 유아교육 현장을 접할 기회를 통해서 자기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간혹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외 유아교육 현황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어서 항상 궁금함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외연수는 다른 나라의 유아교육을 경험하고 나 자신의 현 주소를 다시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첫째,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운용에 있어서, 유아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우리 유아들보다 해야 할 활동량이 적다고 느껴서인지, 동유럽 유아들은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듯 보였다.

셋째, 학부모 관계 등에 있어서, 학부모는 유치원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아닌 함께 약속을 지키고 협력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유치원에서는 오전 9시가 되면 유치원 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였다. 우리였으면 아마도 학부모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다.

대학에서 배웠던 문구가 떠올랐다. ‘행함으로써 배운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고 시도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보다 더 자주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 본질에 충실한 교육, 자립심을 키우는 아이들

---

교사 이00

유아교육 선진화 국외연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육환경과 교육방식, 그리고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본질에 충실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현장을 견학하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유아교육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의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유치원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크게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다.

첫째, 자연친화적인 실외활동 공간 조성이다.

우리가 방문한 대부분의 유치원은 오래된 아름드리나무가 어우러진 넓은 공간 속에서 마음껏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바깥놀이 활동 영역을 구비하고 있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의도적으로 숲과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니 70여년이 지난 지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의 유치원도 교원들의 노력에 의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을 신·증설할 때 자연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 한다면 수십 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유치원의 아이들도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교육방식과 교사의 역할이다.

유아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체험중심, 생활중심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자립심을 키우는 교육방식은 우리 지역, 우리 유치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더 확산되고 일반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서 교사와 유아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이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사가 유아를 관찰하여 사회성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여건이 되기에, 보조 교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면 학급별, 연령별 유아 정원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한 담당이나 부서를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들에게 자녀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주고 있었다. 매일 부모의 책임 하에 등·하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등·하원 시 유아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유아기에 중요한 정서적 애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사와 부모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의 유치원도 학구를 정해서 가능한 한 많은 유아들이 통학버스를 타지 않고 가까운 유치원으로 부모와 함께 걸어서 등·하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아의 연령이나 부모의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었다. 방과후 과정비도 부모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소득정도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유치원은 50%의 아이들이 반일반을 마치고 12시에 귀가를 해서 부모와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물론 스포츠클럽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우리 유치원들도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오후 방과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유아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들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본질에 충실한 교육방식과 교육환경, 교육자로서의 마인드였다. 다양한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달 단계를 인정받으며 자립심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 자녀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 걸으로 보여 지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교원들을 보면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 있는 연수였다.

## 발칸 반도 3국의 유아교육정책을 통해서...

---

교사 이00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유아교육 현장 참관을 통해서 현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고 매우 뜻 깊었다. 그 중에서도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의 유아교육정책을 살펴보았다. 위 세 나라는 역사적으로 주변 여러 제국들의 지배 및 사회주의를 기초로 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붕괴와 분열로 분리, 독립된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오랜 기간의 비슷한 환경,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해왔지만 현재는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크로아티아의 유아교육정책은 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으로 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교육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자발성을 키우며 유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도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발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둘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아교육정책은 3세에서 5세까지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일반법에 따라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 최소한 1년간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며 교육의 주요 골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었다.

셋째, 세르비아의 유아교육 정책은 초등학교 예비 과정으로 명명되고 1년간 무상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는 '자율과 개방'으로 신교육 이념을 근간으로 하며 유아들의 초기 발달 도모와 아동 건강 개선 및 범죄나 비행 행동 근절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렇듯 세 국가의 교육정책은 각기 다르지만 교육이념은 공통된 부분이 엿보인다. 바로 공교육을 통한 자율이다. 이것은 비단 이 세 나라만의 특징이 아닌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율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욱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신선한 생각을 지닌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이 주요 교육기관이 되어버려 공교육의 무게감이 점점 떨어지는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현 우리나라 공교육의 자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실행할 힘이 약하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마음껏 뛰어 놀고 뒹굴며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교사 허00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유공교원·전문직 국외 연수를 통해 선진유치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현장 연수를 통한 교수·학습개선과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독일의 선진 유치원을 탐방하면서 외국의 유아교육정책 동향을 파악·분석할 수 있었고, 유아교육 현장의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째, 선진유치원들의 환경부분을 보면 실리주의 환경으로 낮은 건물로 건축되어 수수한 건축양식과 견고하게 만들어진 유치원이었다. 바깥에 펼쳐진 실외놀이 환경은 환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안전에 무척이나 예민한 편이라 바깥놀이를 하러 가면 교사들이 늘 긴장하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바로 제지하는 반면 독일의 유치원은 아이들이 교사들과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이하고 주변의 강요를 최소화하여 독립심과 협동심, 모험심을 기르는데 최적의 환경이란 생각이 들었다. 교실 내의 자연물(나뭇가지)을 이용한 모빌과 교사의 손길이 아닌 온전히 유아들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환경구성 등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둘째, 교육내용으로는 혼합연령으로 이루어져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우선시 되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준비교육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가정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부분이 잘 되어있었다, 교사는 원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노는지 사회성과 학습할 때 집중력을 관찰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와 유아들의 비율이 1:4~5명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작은 그룹 활동을 통해 원아들을 하나씩 돌보아주고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선택권을 유아들에게 주어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므로 학업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놀이중심의 유치원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등·하원도 스쿨버스가 아닌 학부모가 직접 동반하여 이루어져 학부모와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한 교사가 3년씩 같은 원아를 담임하여 유아에 대해 자세한 관찰이 이루어져 학부모들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교사를 신뢰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느끼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유아교육의 본질이며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방향인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의미 있고 값진 연수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연수의 기회가 많은 교사들에게 주어지길 기대해본다.



## 합리적인 유럽교육

교사 김00

10박 12일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유럽의 전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다녀온 곳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중세시대와 근대 시대를 주름잡았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우뚝 솟은 교회, 성들을 보면서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의 조화를 볼 수 있었다. 이 처럼 긴 역사를 지금의 후손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독일 뮌헨에서 화장품 가게를 가게 되었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선택하는데 걱정이 되었으나 우연찮게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게 되어 통역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분은 40년 전에 간호사로 와서 독일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일행 중 한분이 헤어무스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곳은 없다고 한다. 그럼 스프레이는 있는지 다시 물었다. 이것 역시 없다고 했다. 여기는 바이오 제품 이외에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스,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말자는 교육을 하면서도 어디서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가까운 지인의 선물을 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개의 선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점원이 포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어디에 담아갈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닐봉지 아니면 재활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는데 여기에서는 간편한 시장바구니에 선물을 담아 주면서 따로 돈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선물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장식을 해서 주는 것에 반해 상자 하나 없이 포장이 너무 단순하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물을 받으면 참 예쁜 포장인데 하면서 포장지를 벗겨 결국은 쓰레기통에 넣었던 기억을 하면서 독일인의 합리적인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독일인은 3명 이상이 모여야 담배를 피운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나 보다는 여러 사람,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독일인의 의식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았다. 한편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 폭스바겐 자동차의 건은 유감이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드넓은 땅에 1년에 2회씩 유채 농사는 많이 짓는다고 한다. 유채기름을 정제하여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를 더 늘린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눈앞보다는 우리 후손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곡창지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오밀조밀한 작은 땅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이구나!’하는 생각?

다음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내가 바라본 유럽 유아교육을 간단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취학전 교육이 0~5세로 이원화 즉 어린이집, 유치원 체제로 3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이들 유치원은 전면 무상교육이 아닌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고 1년간의 의무교육을 대부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환경은 그리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환경 자체가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충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다. 교실 밖을 나오면 아름드리나무가 어우러진 숲이 이루어져 있다. 다만 크로아티아에서 본 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치원 환경과 가장 흡사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유럽에서도 몬테소리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교실의 베란다를 활용하여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환경도 인상적이었다.

셋째, 교육 방법적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인 담임체제 하에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유아의 연령, 수업의 유형에 따라 교사 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유치원이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합연령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선택활동이 유아 주도성을 강조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신장시킨다면 이곳은 대부분의 학습이 유아 선택적 학습이라는 것이다. 교사마다 프로젝트를 달리하고 유아들은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1, 2층을 오가며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듯하다.

유럽교육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들끼리 볼로냐 협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통합하고 있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었다. 고로 유럽 교육은 각 나라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로 보아진다.

유아기 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자기 주도성 교육은 진로 교육과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0살이 되면 진로를 결정하는 유럽과 대학을 마쳐도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끝으로, 주어진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내용과 지도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연수가 되었다.